

외국인 투수 메디나·5선발 운영철 첫 등판에 쏠린 눈

KIA, 주중 KT 위즈 원정 경기 ... 지난해 열세 만회가 숙제 주말 두산 베어스 상대 홈 개막전 ... 거포 변우혁 활약 기대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에 시선이 쏠린다. SSG 랜더스를 상대로 개막 2연전을 소화한 KIA 타이거즈가 수원을 돌아 광주에서 승수 쌓기에 나선다. 주중 KT 위즈와 만나는 KIA는 7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는다. KT와의 승부는 올 시즌 흐름을 좌우할 '기싸움'이다.

지난 시즌 KIA는 KT를 상대로 5승 1무 10패의 열세를 보였다. KT는 2022시즌 KIA의 마지막 상대이기도 했다.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였던 KIA는 나지완의 은퇴식이 열렸던 10월 7일 KT와의 홈경기 승리로 최정전을 앞두고 어렵게 5위를 확정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 역시 KT였다. 시즌 막판 흐름과 전력으로는 KIA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1차전에서 일방적인 흐름 속에 2-6패를 당하면서 4년 만의 포스트 시즌을 1경기에서 마무리해야 했다.

올 시즌 KIA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KT전 열세 만회가 숙제다.

주말 3연전에서 만나게 되는 두산에는 '우위 외기가 KIA의 숙제'다.

KIA는 2021년까지 3시즌 동안 두산에 11승 2무 35패(승률 0.239)의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뒷심싸움에서 밀리며 두산에 약했던 KIA는 지난 시즌 9승 7패를 기록하면서 판세를 뒤집었다.

지난 시즌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지만 두산에 큰 변화가 있다. '국민 타자' 이승엽이 두산 사령탑으

로 챔피언스필드를 찾는다. 초보 감독과 지난 시즌 아쉬움을 털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김종국 감독의 벤치 싸움이 관심사다.

무엇보다 KIA 마운드에 시선이 쏠리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손 앤더슨과 이이리로 개막 2연전을 치른 KIA는 아도니스 메디나로 한 주의 스타트를 끊는다.

앤더슨이 6.2이닝 패전 투수는 됐지만 새 리그에 연착륙을 한 상황. 새 외국인 선수 메디나가 본 무대에서 올 시즌 각 팀 사령탑들이 '공공의 적'으로 꼽은 KT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노련함을 앞세운 양현종과 정교함으로 5선발 자리를 쟁찬 운영철, 두 좌완의 시즌 첫 등판도 관심사다.

한중 총출세진 마운드로 시즌을 출발했지만 KIA에 '부상' 악재가 찾아왔다.

1일 개막전에서 김선빈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2일 경기를 쉬어갔고, '키플레이어' 김도영은 2일 3안타 행진을 펼쳤지만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3-4개월 자리를 비우게 됐다.

박찬호와 김도영으로 '테이블 세트'를 구축하면서 그 위력을 보여줬던 만큼 KIA는 아쉬움 속에 새 진영을 짜게 됐다.

'우타거포' 변우혁의 움직임은 반갑다. 변우혁은 2일 KIA 유니폼을 입고 신고식에 나서 첫 타석에서부터 홈런을 날리는 등 2안타 2볼넷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치열해진 1루 경쟁이 부상으로 비상이 걸린 내야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도니스 메디나



운영철

김도영의 시계 멈췄다

발가락 골절 수술 12~16주 결장 ... 여름에나 출전 가능



김도영

KIA 타이거즈 김도영의 시계가 멈췄다. 여름에 다시 김도영의 질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KIA는 3일 "김도영의 재검진 결과 왼쪽 중족골 골절(5번째 발가락)로 어제 검진과 동일한 소견이 나왔다. 세중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핀 고정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수술 후 경기 출전까지는 12~16주가 걸릴 전망이다.

김도영은 지난 2일 SSG와의 경기에서 4회초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황태인의 적시타 때 득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슬라이딩으로 홈에 들어온 김도영은 한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이어진 수비에서 류지혁과 교체됐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김도영은 검진 결과 왼쪽 중족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재검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김도영은 4일 수술을 받은 뒤 5일 퇴원해 재활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시즌 김도영은 김종국 감독은 물론 KIA 선수들 모두 주목한 '키플레이어'였다.

지난 시즌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KBO리그에서 손에 꼽는 발과 타격 재능으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준비가 잘 이뤄졌다.

스토브리그 기간에 타격을 정비한 김도영은 캠프, 시범경기에서는 수비에 공을 들이면서 자신감으로 시즌을 기다렸다.

개막에 앞서 김도영은 "지난해 개막전은 포스트 시즌 같았다. 내 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다"며 "올해도 작년과 똑같으면 어떨까 걱정도 했다. 개막전에서 나가서 안타를 못 치더라도 작년만큼 마음을 다르게 먹겠다"고 개막을 기다렸다.

타격 페이스도 개막에 맞춰 좋은 흐름이었다. 김도영은 "페이스가 떨어지는 게 작년하고 다르다. 지난해 시범경기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다. 작년과는 느낌이 다르다. 형들, 선배님들도 확실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며 "한 해 한 해 기대가 되겠지만 올해는 뭔가 다른 마음이다. 작년엔 내 장점을 많이 못 보여줬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그 자신감 대로 김도영은 개막전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고,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2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좌익수, 중견수 방향으로 공을 보내 안타를 만들었고, 빠른 발을 활용한 내야 안타까지 세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생산했다.

좋은 출발로 '김도영의 시즌'을 예고했던 만큼 팬들은 물론 김도영에게도 안타까운 부상이 되고 말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효주, LPGA 투어 3경기 연속 톱10

LA오픈 12언더파 공동 3위

김효주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경기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주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이스테이트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총상금 175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김효주는 공동 3위에 올랐다.

HSBC 월드 챔피언십 공동 8위, 혼다 타이랜드 공동 10위에 이어 올해 치른 3차례 대회에서 모두

10위 이내에 들었다. 올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인위닝(중국)에 2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효주는 인위닝의 3~5번 홀 연속 보기 덕분에 1타차 선두에 나섰지만, 끝내 타수를 줄이지 못해 역전에 실패했다.

10번(파5), 12번 홀(파5) 보기로 추격의 동력을 잃은 김효주는 16번 홀(파5) 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다.

김효주는 17번 홀(파3) 버디로 공동 3위로 올라서 위안으로 삼았다.

중국 본토 출신 인위닝은 1타를 줄여 조지아 홀(잉글랜드)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인위닝은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쳤다.

인위닝은 3연속 보기 뒤에 4연속 버디를 잡아내는 등 버디 6개, 보기 5개를 써내는 날뛰기 경기를 펼쳤지만, 막판 5개 홀을 잘 막아냈다.

중국 국적 선수가 LPGA투어에서 우승한 것은 은퇴한 평산산에 이어 인위닝이 두번째다.

7일 전 드라이브오픈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홀은 2주 연속 준우승을 했다. 홀은 이날 4언더파를 때렸으나 마지막 18번 홀(파5) 2m가 채 되지 않은 버디 퍼트를 놓쳐 땅을 쳤다.

최혜진과 유래란이 공동 18위(5언더파 279타)에 올랐고, 고진영은 공동 25위(4언더파 280타)에 그쳤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34위(3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우즈, 오거스타서 연습...마스터스 출전

개막전 기자회견 참석 예고

타이거 우즈(미국)가 마스터스 개막을 사흘 앞두고 대회에 열릴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 모습을 드러냈다.

골프다이제스트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들은 우즈가 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 나타나 연습장에서 불을 켜고도 보도했다.

우즈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쯤 캐디인 조라카바, 친구 릭 맥나마라와 함께 연습장에 들어섰다.

연습장으로 걸어들 때 다리를 저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골프다이제스트는 전했다.

우즈는 제이슨 데이(호주)와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눈 뒤 30분가량 공을 쳤다.

웨이, 쇼트 아이언, 페어웨이 우드, 그리고 드라이버를 차례로 점검했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프레드 리틀리 회장이 연습장에 들어서 우즈와 인사를 나눴다.

우즈는 잠시 후 웨지와 퍼터를 든 채 카트를 타고 코스로 나갔다. 코스에서 쇼트게임과 퍼트 연습을 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우즈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 나타나 연습을 한 것은 오는 6일 개막하는 마스터스에 출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ESPN은 우즈가 이날 연습하러 나온 건 마스터스에 나가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즈는 이미 대회 개막전 주요 선수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겠다고 밝혀 마스터스 출전을 어느 정도 예고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복귀 하자마자 시즌 4호골

축구 국가대표팀 3월 A매치에서 골 맛을 본 황인범이 소속팀 올림피아코스 유니폼으로 돌아왔다. 자마자 또 득점포를 가동했다.

올림피아코스는 3일(한국시간) 그리스 피레아스의 카라이카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리스와의 2022-2023 그리스 슈퍼리그 28라운드 플레이오프(상위 스플릿)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이 전반 36분 선제골을 터뜨려 올림피아코스에 리드를 안겼다. 황인범은 세르지 카노스로부터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오른발 땅볼 슈팅을 날려 골키퍼가 손 쓰기 어려운 골대 왼쪽 하단 구석을 뚫었다.

이로써 황인범이 리그에서 올린 공격포인트는

3골 4도움으로 늘어났다.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예선에서 기록한 1골을 포함하면 공식전 4골 4도움이다.

황인범은 지난달 24일과 28일 한국에서 열린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평가전에 모두 나섰고, 우루과이전(한국 1-2 패)에서 후반전 동점골을 넣으며 골감각을 과시했다.

축구 통계 업체 '풋볼'은 황인범에게 팀에서 3번째로 높은 7.8의 평점을 부여했다.

/연합뉴스